

초·중등학교 미술교과서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 불교조각을 중심으로

김 인 창(목포대학교 강사)

《 요 약 》

제7차 미술교육과정에 의한 미술 교과는 감상 영역이 확대되고 우리 미술의 특성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통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현행 미술교과서 내용 구성은 우리나라 전통 미술품의 여러 영역(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이 고루 포함되어있다. 불교조각은 전통 조각의 대표로써 감상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초·중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린 불교조각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구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도되었다. 이를 위해 현행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불교조각의 학년 위계별 차별성, 영역별 편성방식, 예시작품의 특성, 서술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 미술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경계함과 동시에 타문화 미술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다원적 미학 기준을 모색하였다. 불교조각이 지닌 다양한 조형성을 교과 내용에 포함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영역별 편성 방식 및 학년 위계에 의한 단계별 구성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불교조각, 전통미술, 감상, 미술교육, 교과분석, 도상(圖像)

I . 서론

불교조각은 우리 조상의 전통적 미의식이 반영된 종교예술 활동의 결과물으로써 우리나라 전통 조각의 근간을 이룬다. 불교조각에 관한 교육은 우리나라 미술 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며, 전통 문화에 대한 창조적 계승을 모색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불교조각은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법과 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불교조각에 관한 연구는 종교적 도상(圖像, Iconography) 형식과 미술적 표현 양식(樣式, Style)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도상 연구는 각 도상의 교리적 의미와 시각적으로 표현된 상(像)의 형식에 관한 연구이며, 양식 연구는 미의식의 변화에 따른 양식 차이를 분

석하는 것이다. 불교조각의 교육적 활용은 도상보다는 양식사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시대 또는 왕조에 따른 조형 특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최근의 불교조각에 관한 연구(이주형, 2007; 김인창, 2007; 장미진, 2008)는 불상(佛像)이 지닌 미학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 이러한 연구 결과와는 달리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불교조각에 관한 내용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나 그대로인 것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불교조각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을 지향하는 교과 특성에 부합하는 전통미술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본 연구의 전개는 현행 미술교과서의 내용 분석, 불교조각에 관한 다양한 해석, 미술교과서의 활용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미술교과서의 분석은 초등학교 국정 미술교과서 4종(3~6학년), 중학교 검정 미술교과서 21종, 고등학교 검정 미술교과서 8종, 그리고 ‘미술과 생활’ 5종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 〈표 2〉, 〈표 3〉 참조). 분석 내용은 각 교과서에 실린 불교조각의 종류, 단위별 특징, 그리고 서술 내용을 포함하였다.

Ⅱ. 불교조각에 관한 미술교과서 내용

1. 초등학교 미술교과서 분석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린 불교조각 작품은 <석굴암본존불좌상>과 국보 제83호로 지정된 <금동반가사유보살상>이다(〈표 1〉 참조).²⁾ 이들은 6차 교육과정 미술교과서에도 등장하였으며, 그 때는 <석굴암본존불좌상>이 6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었으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교과서로 옮겨졌다.

4학년 미술교과서의 47쪽, ‘우리나라 미술품’ 감상 부분에는 <석굴암본존불좌상>의 사진과 함께 미학적 특징이 서술되어 있다. 5학년 미술교과서 47쪽에는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보살상>이 로댕(Auguste Rodin)의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수록되어서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배치되었다. 4학년 미술교과서의 <석굴암본존불좌상>이 한국미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 5학년 미술교과서의 <금동반가사유보살상>은 다문화 속의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교육적 목적이 내포되었다.

1) 한국미학예술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이주형(종교와 미학사이: 불상보기의 종교적 차원과 심미적 차원), 장미진(불교미학의 기초개념 연구 시론), 이도흙(불교에서 예술적 형상화의 철학적 근거) 등이 불교조각에 대한 새로운 미학 기준을 제시하였다.

2) 교과서에는 작품명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가사유보살상’으로 통일하였다.

다른 나라 미술 문화에 대한 관심은 6차 교육과정 미술교과서에서 더 강조된 측면이 있다. 6차 교육과정 5학년 미술교과서 48쪽에는 <금동반가사유보살상>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실려 있고, 이에 관한 비교 학습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6차 교육과정 6학년 미술교과서 47쪽에는 <석굴암본존불좌상>과 함께 이집트의 <아부심벨 신전>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작품들에 관한 ‘학습활동의 정리’에도 위의 학습활동과 동일한 비교 학습 내용이 등장한다(표 1) 참조). 이에 비해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석굴암본존불좌상>이 4학년 미술교과서로 옮겨지고, 내용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오히려 강조 되었다. 여기서는 석굴암 본존상이 ‘우리 조상이 만든 미술품’을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훌륭한 미술품’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표 1〉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린 불교조각

작품	교과서	쪽	내 용	
반가사유상 -국보83호	6차 교육과정 5학년 미술	48	서술내용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품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비교해 보았습니까?
			비교사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7차 교육과정 5학년 미술	47	서술내용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징을 찾아 이야기하여 봅시다.
			비교사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석굴암본존 불좌상	6차 교육과정 6학년 미술	47	서술내용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품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비교해 보았습니까?
			비교사진	이집트 <아부심벨 신전>
	7차 교육과정 4학년 미술	47	서술내용	우리 조상이 만든 미술품의 특징을 찾아봅시다.
			비교사진	없음

2. 중학교 미술교과서 분석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 검정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대한 분석 결과³⁾ 대부분의 책에서 불교조각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참조).⁴⁾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예시된 불교조각 작품은 각 출판사마다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석굴암본존불좌상>은 모든 출판사에서 일순위로 선호한 작품으로 조사되었다.⁵⁾ 석굴암 조각은 모든 출판사에서 예

3) 조사대상 미술교과서(7종 21권) : 교학사, 교학연구사, 대한교과서, 두산, 삼과 꿈,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4) 조사대상 21권 중에서 3권의 교과서만이 불교조각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교과서의 3학년 미술; 삼과 꿈의 1학년 미술;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3학년 미술.

5)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린 31개의 불교조각 중에서 13개가 석굴암 조각이었으며, 그 중 본존불상이

의 없이 다루었으며, 대부분 1학년 교과서에는 본존불을 소개하고, 2학년 교과서에서 보살상과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⁶⁾ 석굴암 다음으로 많이 소개된 조각은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보살상> 5회, <서산마애삼존불상> 5회, <연가칠년명금동불입상> 3회, 그리고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보살상> 3회로 나타났다. 이들을 제외한 예시 작품은 두 작품에 불과하였다.⁷⁾ 이는 미술교과서에서 다루는 불교조각이 대단히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조사대상 7종 21권의 미술교과서에 소개된 불교조각은 총 9 작품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동일 출판사의 미술교과서에 같은 작품이 다른 학년 교과서에 반복되어 실린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⁸⁾

조사 대상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예시된 불교조각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삼국시대 작품이 17회 등장하고, 통일신라시대 작품이 14회 등장하였다. 고구려 작품은 4회로써 대부분 <연가칠년명금동불입상>이 대표하며, 백제 작품은 <서산마애삼존불상>이 5회 등장하고, 그리고 삼국시대 말기에 제작된 국보 제83호와 제78호 <금동반가사유보살상>이 각각 5회, 3회 등장하였다.⁹⁾ 통일신라시대 작품은 단연 석굴암 조각이 대표하며,¹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작품은 등장하지 않았다. 도상(圖像)별 분포는 불상(佛像) 19회, 보살상(菩薩像) 9회, 호법신중상(護法神衆像) 3회로 조사되었다. 불상은 <석굴암본존불좌상>이 선호되었고, 보살상은 <금동반가사유상>이 대표하며, 호법신중상은 <석굴암금강역사상>이 전부였다.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등장하는 불교조각은 대부분 ‘감상 영역’에 소개되었으며, ‘미적 체험’ 또는 ‘표현 영역’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¹¹⁾ 이는 불교조각이 미술사적 흐름 속에서 중요시 되었을 뿐, 조형 요소 혹은 미적 표현 활동에서는 등한시되었음을 의미한다.

9예, 금강역사상이 3예, 십일면관음보살상이 1예로 조사되었다.

6) 석굴암 본존상은 1학년 교과서에 5번, 2학년 교과서에 3번, 3학년 교과서에 1번 등장한다. 본존상을 포함하여 다른 석굴암 조각을 2번 이상 소개한 교과서는 대한교과서, 삶과 꿈, 중앙교육진흥연구소로 조사되었다.

7) 두산의 2학년 미술 66쪽 <고구려금동불입상>, 교학연구사의 3학년 미술 6쪽 <칠불암마애불상>.

8) 교학연구사의 1학년 교과서에 등장하는 <석굴암본존불좌상>은 2학년 교과서에도 다시 수록되고, 교학사의 1학년 교과서의 <서산마애삼존불상>은 2학년 교과서에도 등장하며, 지학사의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금동반가사유보살상(국보83호)>은 3학년 교과서에 다시 등장한다.

9) 이 두 반가사유상은 대체로 삼국시대 말기 신라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다양한 이견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원룡(1980, p. 109), 강우방(1982, pp. 1~36), 황수영(1974, p. 160), 문명대(1980, pp. 151~152), 김리나(1992, pp. 63~64), 정영호(1984, pp. 125~132) 참고.

10) 조사대상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예시된 불교조각 중에서 통일신라시대 작품은 석굴암 조각 작품이 13번 등장하였고, <칠불암마애불상>이 교학연구사 중3 미술에 1번 소개되었다.

11) 교학연구사의 중학교 2학년 미술교과서의 표현 영역에 <석굴암본존불좌상>을 실고, 3학년 교과서의 체험 영역에 <남산칠불암마애불상>을 소개하였다. 지학사의 1학년 미술교과서에는 체험 영역에 문화재 사진을 배치한 ‘전국지도’를 소개하였다.

〈표 2〉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린 불교조각

학년	작품명	단원	쪽	출판사명	비고
중1	서산마애삼존불상	감상	62	교학사	
중1	서산마애삼존불상	감상	64	교학연구사	설명, 부분사진
	석굴암본존불좌상	감상	64		설명
중1	석굴암본존불좌상	감상	60	두산	비교사진
중1	석굴암본존불좌상	부록	72	대한교과서	
중1	반가사유상-국보83호	감상	66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설명
	석굴암본존불좌상	감상	70		
중1	서산마애삼존불상	체험	13	지학사	전국문화재지도
	석굴암본존불좌상	체험	13		전국문화재지도
	반가사유상-국보83호	감상	66		설명, 비교사진
중2	서산마애삼존불상	감상	62	교학사	부분사진
	반가사유상-국보78호	감상	62		
	석굴암본존불좌상	부록	71		설명
중2	석굴암본존불좌상	표현	38	교학연구사	설명, 비교사진
중2	연가칠년명금동불입상	감상	64	대한교과서	설명
	반가사유상-국보83호	감상	64		설명, 비교사진
	서산마애삼존불상	감상	64		설명
	석굴암본존불좌상	감상	65		설명, 석굴암도면
	석굴암십일면관음보살상	감상	65		설명, 상반신
	석굴암금강역사상	감상	65		설명, 상반신
중2	고구려금동불입상	부록	66	두산	
중2	석굴암금강역사상	감상	57	삶과 꿈	운동감 비교
중2	석굴암금강역사상	표현	37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입체감 설명
중2	반가사유상-국보78호	부록	67	지학사	
중3	연가칠년명금동불입상	감상	55	교학사	설명
중3	경주남산칠불암마애불상	체험	6	교학연구사	
	반가사유상-국보78호	감상	60		83호로 오기
중3	연가칠년명금동불입상	감상	60	두산	
	반가사유상-국보83호	감상	62		
중3	석굴암본존불좌상내부	감상	54	삶과 꿈	
중3	반가사유상-국보83호	감상	61	지학사	비교사진

미술교과서에 실린 불교조각에서 문제되는 것은 작품 사진의 상태, 작품 설명 및 해설 등이다. 작품 사진의 상태는 해상도, 크기, 색상, 사진의 각도 등을 중요시해야 한다. 조사된 31점의 불교조각 사진에서 약 1/5이 너무 작거나 부분 사진이었다. 특히 사진의 촬영 각도는 3차원적인 조각의 실제 모습을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어느 각도에서 촬영하느냐에 따라 조각의 각 부분 비례가 변함으로써 조각형태가 다르게 보인다. 미술교과서에 실린 <석굴암본존불좌상> 자료사진은 촬영 각도에 따른 왜곡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린 불교조각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이나 작품해설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는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할 수 있는 작품 사진을 제시한 경우는 약 1/5에 그쳤다.

3.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분석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2002학년도부터 사용된 고등학교 미술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 검정 ‘미술’과 선택 교과인 ‘미술과 생활’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8종의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와 5종의 ‘미술과 생활’을 대상으로 불교조각에 대한 활용 특성을 조사하였다(〈표 3〉 참조).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불교조각은 대체로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린 작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대상 교과서에 수록된 34점의 불교조각 작품 중에서 25점이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이미 소개되었던 작품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빈번히 예시된 작품은 석굴암 조각(본존불상 7회, 보살상 3회)으로써 10종의 교과서에서 다루었으며, 다음으로는 국보 제83호인 <금동반가사유보살상>이 6회, <서산마애삼존불상>이 4회, <연가칠년명금동불입상>이 3회, 그리고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보살상>이 2회 수록되었다. 이는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선호도와 비슷하다. 불교조각의 도상별 분포도는 부처상이 19회, 보살상이 14회, 그리고 금강역사상이 1회로 나타났다. 시대별 분포도는 고구려 4회, 백제 4회, 삼국시대 말엽의 반가사유상(신라 추정) 8회, 통일신라시대 15회, 그리고 고려시대 작품이 3회 등장하였다. 중학교 미술교과서에는 없었던 고려시대 불교조각 작품이 3종의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새롭게 추가되었다.¹²⁾

고등학교 미술교과서는 예시 작품에 설명이 첨가된 경우가 8점(전체의 약 25%)으로써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비해 반 이상 줄어들었다.

4. 초·중등 미술교과서의 불교조각 내용특성

가. 불교조각 예시도판의 내용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40여종의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불교조각 작품을 분석한 결과 예시 도판은 몇몇 작품으로 한정된 특징을 보였다.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석굴암본존불좌상>과 <금동반가사유보살상(국보 제83호)>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서도 1, 2순위의 선호도를 보여준다. 이들에 이어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서산

12)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 삶과 꿈, 56쪽 <춘궁리칠조여래좌상>; 천재교육, 57쪽 <부석사소조여래좌상>. 고등학교 미술과 생활 : 지학사, 90쪽 <관축사석조미륵보살입상>.

마애삼존불상>, <연가칠년명금동불입상>, <금동반가사유보살상(국보 제78호)>은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도 그대로 반복된다. 그 결과 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새로운 교과서를 받게 되어도 동일한 예시 작품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된다.

〈표 3〉 고등학교 미술/미술과 생활에 실린 불교조각

교과서	작품명	영역	쪽	출판사명	비고
미술	연가칠년명금동불입상	감상	62	교학사	
	석굴암본존불좌상	감상	63		
미술	석굴암본존불좌상	감상	66	시공사	설명, 비교사진
	서산마애삼존불상	감상	73		
미술	석굴암본존불좌상	조형의 이해	11	두산	설명
	연가칠년명금동불입상	감상	61		
	반가사유상-국보78호	감상	61		
미술	서산마애삼존불상	감상	54	삶과 꿈	비교사진
	석굴암본존불좌상	감상	55		
	반가사유상(83호)변화도	감상	55		
	춘궁리철조여래좌상	감상	56		
	군위삼존불상	감상	63		
미술	반가사유상-국보83호	감상	55	천재교육	부분사진
	석굴암본존불상	감상	56		
	금동반가보살두상	감상	56		
	부석사소조여래좌상	감상	57		
미술	반가사유상-국보83호	미와 창조	26	교학연구사	설명, 비교사진
	석굴암십일면관음보살상	감상	67		
미술	고구려금동반가사유상	표현	37	금성출판사	비교사진
	반가사유상-국보83호	감상	56		
	장항리사지금강역사상	미술사 연표	65		
미술	석굴암문수보살상	표현	31	대한교과서	설명, 부분사진 변천 비교사진
	반가사유상-국보83호	감상	67		
미술과 생활	석굴암본존불좌상	미술의 이해	22	대한교과서	
	서산마애삼존불상	미술의 이해	31		
	반가사유상-국보83호	미술의 이해	31		
	석굴암범천과 보살상	감상	44		
미술과 생활	반가사유상-국보78호	표현	51	시공사	설명, 비교사진
미술과 생활	불국사금동비로자나불좌상	감상(불국사)	75	교학사	
	불국사금동아미타불좌상	감상(불국사)	75		
미술과 생활	연가칠년명금동불입상	감상	85	지학사	설명
	서산마애삼존불상	감상	86		설명
	석굴암본존불좌상	감상	87		설명
	관촉사석조미륵보살입상	감상	90		
미술과 생활	(석굴암본존불좌상)		117	일진사	(학생 포스터)

나. 불교조각 예시 도판의 편성 특징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불교조각 예시 도판은 학년별 제시 기준이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경우 저학년 교과서에 <석굴암본존불좌상>의 비중이 크고, 고학년 교과서에 석굴암의 보살상 또는 호법신중상이 대체로 많이 수록되었다(〈표 2〉 참조). 하지만 출판사에 따라서는 반대로 편성된 경우도 있다. <석굴암본존불좌상>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 작품 1순위로 조사되었다. 이는 특정 작품에 대한 선호도가 학년 위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출판사마다 초·중·고 단계별로 특정 작품을 반복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조각 예시 작품은 대부분 감상 영역에 편중된 특징을 보인다.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미적 체험 및 표현 영역에 소개된 불교조각은 전체의 약 20%이고,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의 표현 영역에 소개된 작품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미적 체험 또는 표현 영역에 예시된 불교조각의 경우라도 작품 설명에 있어서 감상 영역의 지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조형 특성이 강조되어 서술된 특징을 보인다.¹³⁾

다. 불교조각에 대한 서술 특성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불교조각 예시 작품에 관한 설명은 학년에 따른 난이도에 있어서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서술내용 또한 출판사에 관계없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술품에 대한 서술은 시대별로 분석 관점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삼국시대에는 주로 미적 느낌 위주의 서술이 많고, 통일신라시대 작품은 조형적 특징이 크게 부각되었다. 고구려 작품은 강렬함, 백제 작품은 고졸함, 신라 작품은 우아함을 지배적 분위기로 서술하고 있으며, 통일신라시대 작품은 완벽한 조화를 특징으로 서술되는 경향을 보였다. 삼국시대 불상에 대한 서술에는 간혹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왕조 미술의 영향이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미술교과서에 실린 불교조각에 관한 설명은 대체로 주관적 판단에 의한 미학적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중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불교조각에 관한 설명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뛰어난’(8회), ‘온화한’(3회), ‘부드러운’(8회), ‘우아한’(4회), ‘(자애로운)미소’(6회), ‘균형(잡힌)’(6회), ‘승고한’(4회), ‘세계적’(4회), ‘인간미’(3회), ‘가장(뛰어난 또는 오래된)’(5회), ‘우수한’(2회), ‘조형성(또는 조형미)’(5회), ‘세련된’(3회), ‘사실적’(2회), ‘조화미(또는 조화로운)’(4회), 등으로 조사되었다. 김원룡(1978, p. 83)은 “과거에 나타난 한국미술에

13) <석굴암금강역사상>에 관한 설명(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중학교 2학년 미술교과서 37쪽) : “석굴암 주실 입구에 세워진 화강암으로 만든 부조 작품으로, 부릅뜬 눈, 불끈 쥔 주먹 등에서 강한 덩어리감과 입체감이 느껴진다.”

관한 모든 해설이나 역사에서는 獨特(독특), 優雅(우아), 纖細(섬세), 神品(신품), 高古(고고), 古雅(고아), 憂愁(우수), 最高(최고) 등등의 정해진 형용사 없이는 한발도 문장이 앞으로 나갈 수 없었고,” 이런 서술 방법은 진정한 미술사적 해설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미술교과서의 불교조각에 관한 서술에는 여전히 주관적인 형용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 불교조각과 비교작품 특성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불교조각이 비교 작품과 함께 수록된 경우는 전체의 약 20%로 조사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초·중등학교 미술교과서에 불교조각과 함께 등장하는 비교 작품의 경향은 <표 4>와 같다. 비교 작품이 하나인 경우는 7회, 다양한 작품과 비교된 것은 6회로 조사되었다. 단일 작품 중에서 서양의 작품과 비교된 경우는 5회, 동양의 단일 작품과 비교된 것은 2회이다. <금동반가사유보살상>은 아시아의 다양한 반가상과 비교되는 형식이 2회 조사되었다.

<표 4> 초·중등학교 미술교과서의 불교조각 비교 작품

예시 작품	비교 작품	출판사	학년	쪽
금동반가사유보살상(국보 제83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국정교과서	초5	47
석굴암본존불좌상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두산	중1	61
금동반가사유보살상(국보 제83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지학사	중1	66
석굴암금강역사상	로트레크의 <기수>	삶과 꿈	중2	57
석굴암본존불좌상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시공사	고1	66
금동반가사유보살상(국보 제83호)	일본의 <호류지목조반가사유보살상>	대한교과서	중2	64
군위삼존불좌상	중국 룽먼 석굴	삶과 꿈	고1	63
석굴암본존불좌상	다양한 작품	교학연구사	중2	38
금동반가사유보살상(국보 제83호)	다양한 작품	지학사	중3	61
고구려금동반가사유보살상	다양한 인체조각	금성출판사	고1	37
금동반가사유보살상(국보 제78호)	다양한 인체조각	시공사	고2	51
금동반가사유보살상(국보 제83호)	아시아의 다양한 반가상	삶과 꿈	고1	55
금동반가사유보살상(국보 제83호)	아시아의 다양한 불상	대한교과서	고1	67

불교조각과 함께 비교된 작품의 선정 기준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찾기는 어렵다. 초등학교 5학년 미술교과서에는 <금동반가사유보살상(국보 제83호)>과 함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비교되었으며, 지학사의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에는 동일한 반가사유보살상이 미켈란젤로(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i)의 <피에타(Pieta)>와 함께 실렸다. 다른 두 종의 교과서(두산, 중1 미술; 시공사, 고등학교 미술)에는 <피에타>가 <석굴암본존불좌상>과

함께 비교되었다.

불교조각과 비교 작품의 대상은 저자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비교 작품에 대한 지문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미술교과서 47쪽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징을 찾아 이야기하여 봅시다.”라는 지문이 있고,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두산) 61쪽에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표현 재료, 표현 주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설명해 봅시다.”, 그리고 3학년 미술교과서(지학사) 61쪽에는 “여러 나라의 문화 속에서 미술의 기원을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비슷한 지문이 있다.

Ⅲ. 불교조각에 관한 교육적 활용 방안

1. 불교조각의 다양한 조형성 연구

20세기 말경에 일어난 세계화 이념은 미술교육에 있어서 ‘공동체 중심의 다문화 미술교육’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미술교육의 이념은 여러 문화의 미술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현존하는 다양한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공동체 사회에 적응하고자 한다. 현행 초·중등학교 미술 교과는 다문화 미술교육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전통 미술과 다른 문화의 미술 작품을 병렬식으로 소개하는 감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감상영역의 해석은 여전히 고전주의 미학 또는 이에 준하는 디자인(조형) 요소와 법칙을¹⁴⁾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불교조각을 통해 ‘균형 잡힌 신체’, ‘승고한 표정’, ‘살아있는 듯한 생명감’, ‘온화한 미소’, ‘사실적 표현’, ‘세련된 조화미’, ‘이상화된 인체표현’, ‘우아한 조형미’ 등을 찾고자 하는 의지로 나타난다. 그 결과 우리나라 불교조각은 석굴암 조각을 포함한 극히 일부 작품에 관심이 집중되는 반면 대부분의 작품들은 그 같은 조형성에 못 미치는 작품으로 평가 받아 소외되는 현상을 보인다.

불교조각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불교철학을 연계하여 이해될 때 보다 다양한 미학과 조형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불교조각에 관한 다양한 미의식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찾아질 수 있다.¹⁵⁾

14) 디자인 요소; 선(line), 모양(shape), 명도(value), 형태(form), 질감(texture), 공간(space), 색채(colour) 등. 디자인 법칙; 균형(balance), 통일(unity), 강조(emphasis), 대비(contrast), 반복양상(pattern), 운동감(movement), 리듬(rhythm) 등.

15) 여기에 열거된 불교조각의 다양한 미의식은 학계의 정론화된 이론이 아닌 대안적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학술적 토론에 의해 타당성이 재고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도상(圖像)과 양식(樣式)의 관계 : 불교조각의 양식변화는 문화적 배경 또는 시대에 따른 미의식 변화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교조각에서는 도상이 지닌 관념적 성격에 따라 미술로 표현된 양식의 차이가 발견된다. 즉 동일한 시간대에 제작된 작품일지라도 불상과 보살상의 조형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강우방(1995, p. 401)은 석굴암 조각에 대해 ‘불보살상은 이상적 양식으로 표현되고 십대제자, 인왕상 등은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구분하였다. 문명대(2000, p. 153)는 미술양식의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을 거론하면서 ‘종교미술의 경우 사상이 예술작품을 결정’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시대에 따른 조각가의 미의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서양미술과는 비교되는 특징으로써 불교조각가들이 자신의 미의식에 앞서 자신이 표현하고자하는 대상의 성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조각이 지닌 이러한 특성에 대한 교육은 동양과 서양처럼 상이한 문화에서 창조된 미술에서 발견되는 차별적 조형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② 이상주의(理想主義) 미술 : 불교조각 양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불교조각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이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대체로 ‘사실적 표현’, ‘자연주의’, ‘사실적 생명력’, 또는 ‘사실적 표현주의’ 등으로 나타났다.¹⁶⁾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는 최고의 작품은 8세기 후반경의 석굴암 불상군(佛像群)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서 멀어지는 작품들은 열등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논산의 미륵불처럼 ‘아름답지 않다’고 평가되는 불상에 대한 새로운 미적 기준이 필요하다. 불상이 인간의 사실적인 모습과 닮지 않았거나 종교적 개념을 우선하여 제작되었다는 이유로 아름답지 않다는 평가는 대체로 부당하다. 불교조각가들은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상에 대한 교리적 특성에 부합되는 이상적(理想的, Idealistic) 형태(形態, Form) 또는 도상(像圖, Iconography)을 창안하였고, 그 성격 특성이 가장 이상적으로 드러나는 양식(樣式, Style)을 창조하였다. 그 결과 불교조각은 서양의 고전주의 조각과는 차별화된 조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동서양 조각을 비교함으로써 각 문화에 따른 전통 미의식이 다를 수 있음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부조(浮彫)적 성격 : 불교조각은 현상적으로는 3차원적인 입체감을 지니면서도 2차원적

16) 김원룡(1978, pp. 154~155)은 석굴암 조각에 대하여 자연주의와 표현주의의 신묘한 융합으로 표현하였으며, 김리나(1989, pp. 9~10)는 초기 불교 수용 시기에는 비사실적이고 관념적인 형태를 보이다가, 점차 문화적 여유가 생기면서 조화와 균형이 있는 사실적인 형태로 변한다고 보았다. 강우방(1995, pp. 89~90)은 형태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생명력이 표현되어 있으면 ‘리얼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리얼리즘을 실제 그대로의 사실주의와 달리 표현하여 ‘생명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인 조형 요소를 지니고 있다. 회화와 마찬가지로 불교조각은 감상자가 정면에서 보는 것을 상정하여 제작된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불교조각에는 사실적 굴곡을 지닌 옷 주름 표현보다는 단순화된 음각 또는 양각 선이 자주 사용되었다.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인체 왜곡 현상도 정면에서 마주하게끔 의도된 불교조각의 부조적 특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

- ④ 공간 배치 특성 : 불교조각은 하나하나가 단독 작품인 동시에 여러 상(像)들이 특정 배치 방식에 의해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 불교미술에 있어서 불상은 보살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나한상 및 호법신중상과 함께 표현된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이들은 하나의 돌에 새겨지기도 하지만 각기 분리되어 하나의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개별 상들은 하나의 건물 또는 전체 사찰의 일정 부분에 위치함으로써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작품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므로 불교조각은 각각의 작품이 본래 의도되었던 장소에 관한 지식, 다른 작품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등이 고려되었을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 ⑤ 자연과의 조화 : 불교조각은 사찰건물 안에 안치할 목적으로 조성된 작품도 있지만 실내를 벗어나 자연 속에 조성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실내에 조성된 불상에 비해 거대하며 투박하게 조각된 경우가 많다. 즉 불교조각은 크기, 재료, 상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양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사찰건물 안에 조성된 작품이 보다 섬세하고 화려하다면 사찰 밖에 조성된 작품은 크고 투박한 양식으로 자연과 어우러진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불교조각의 다양한 조형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불교조각의 예술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우리 전통 미술의 독창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타 문화와의 차별성을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조각의 특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의 미학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관한 학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교육적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예시 작품의 다양화

불교조각이 지닌 독창적 조형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미술에 대한 정체성 확립의 일환으로써 중요하다. 불교조각은 다양한 조형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불교조각의 조형성은 크게 도상, 시대, 재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조형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미술교과서에 수록되는 예시 작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미술교과서에 수록되는 불교조각 작품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교과서 집필자의 의견에 따라 취사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차별화된 도상을 함께 수록하여 각 도상에 따른 조형 차이를 설명한다. 차별화된 도상이란 불상, 보살상, 호법신중상, 나한상(羅漢像) 또는 조사상(祖師像), 그리고 각종 동·식물문양 등으로 구분된다.
- ② 차별화된 도상을 학년별 학습자의 발달단계 및 성향에 따로 편성하여 각각의 조형 특성을 설명한다.
- ③ 차별화된 도상을 교과 영역(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성격에 맞추어 구성한다.
- ④ 시대에 따른 조형 특성은 미술사 영역에서 설명될 수 있다. 예시 작품은 시대별로 고르게 편성한다. 현행 교과서에서 소외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작품을 제시함으로써 시대 흐름에 따라 양식 변화가 일어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재료에 따른 조형 특성은 표현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다. 불교조각은 흙, 나무,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 재료의 성격은 표현 양식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재료와 양식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한 예시 작품의 선정은 불교조각의 다양한 조형성을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한 교과서에 지나치게 많은 불교조각이 수록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진 편성 방법 또는 학년별 배분 방법 등을 보완해야 한다. 사진 편성 방법은 미술사적 서술, 연대기적 나열, 특정 작품 감상, 체험 또는 표현 영역의 예시 등에 따라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학년별 배분 방법은 도상, 시대, 재료에 따른 특색 있는 작품을 학년별로 나누어 집중 분석하는 방법이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각각의 미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 정립이 필요하다. 각 학년별로 차별화된 소재를 채택하여 체계적인 설명을 부연할 필요가 있다.

3. 다문화 비교 교육

다문화 미술교육은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과 아울러 다른 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각 문화의 차별적 미의식은 다양한 문화의 특색 있는 작품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교 대상 작품은 여러 종교와 지역의 다양성을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 비교 교육에는 시간적 차이, 문화적 차이, 재료의 차이, 미의식의 차이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다양한 시각을 통해 각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와 대입하여 상호 교차형 인식구조를 갖추는 때 올바른 비평능력이 생기며,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 응용력이 발생한다. 다문화 교육은 단지 여러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각기 다른 문화의 교차 비교 학습을 통해 차별성과 공통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암기식 미술이론보다는 교차

비교를 통한 이해 중심의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

불교조각과 서양의 비교 작품에 대해 ‘서로 비슷한 조형성을 지녔는가’를 묻는다면 부정적인 답을 얻기 쉽다. 학생들이 스스로 작품의 차이를 인식할 때 자신의 느낌과 교과서 서술과의 유사성을 비교하게 되고, 그 결과 교과서의 일방적인 서술에 대해서는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라는 관념을 갖기 쉽다.

학생들이 스스로 작품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할 때 저자의 주관에 따른 미학적 서술보다는 객관적인 형식 특성을 설명하고 미술사적 배경을 첨가하는 서술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미술품 감상을 학생들의 주관에 양보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양 미술을 설명하면서 두 문화의 차이와 미적 태도의 차이를 부연하는 것이 학습자가 미술품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단위 및 내용에 따른 비교 작품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초로 한다.

- ① 문화와 미술 : 각 지역에 따른 특색 있는 다양한 조각 작품을 선정한다. 가급적 동일 시간대의 작품을 선정하여 같은 시간대의 미술일지라도 문화에 따라 다른 미술 특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통일신라시대 석굴암 조각의 비교 작품으로는 15세기의 <피에타>보다는 8세기경의 비잔틴 조각을 선택함으로써 동일 시간대의 문화 차이를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다.
- ② 종교와 미술 : 불교와 비교되는 다른 종교 조각을 선정한다. 각 종교에 따라 아이콘(icon)과 미술 양식이 다를 것을 설명한다. 불교조각은 기독교 조각 또는 힌두교 조각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불교조각을 순수 조각과 비교함으로써 종교 조각과 순수 조각의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시대와 미술 : 시간차를 두고 동일 공간에서 제작된 작품을 선정하여, 같은 지역에 있는 미술일지라도 시대에 따라 양식이 변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서 제작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작품을 비교 예시할 수 있다.
- ④ 도상(圖像)과 양식(樣式) :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제작된 여러 도상을 선정하여 서로 다른 형식과 양식이 존재함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석굴암 조각에서 발견되는 도상간의 양식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석굴암 본존불은 환조로 표현되어 양감이 강조되었고 부동(不動)의 미학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보살상과 나한상들은 부조(浮彫)로 표현되었으며 보다 유연한 자세와 섬세한 조각기법을 보이고 있고, 인왕상들은 보다 역동적인 운동감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도상과 양식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⑤ 유사한 조형성 비교 : 유사한 조형 요소를 지닌 작품을 다양한 문화에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상이한 지역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담기 위한 조형 작업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석굴암금강역사>와 로마 시대의 <원반 던지는 사람>은 운동감을 일으키는 조형 요소를 비교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4. 영역별 구성

현행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불교조각은 대부분 감상 영역에 치중되어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통 미술을 소개하는 문화사적 맥락에서 다루어지거나, 미술사 연표의 예시 작품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는 서양 조각 작품이 표현 영역에 자주 예시되는 것과 비교된다. 미술교과서의 이러한 구성은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현대적 의미의 미술 표현 활동은 서양식 조각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의 전통 조각은 역사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교조각 예시 작품이 각 영역에서 고루 다루어지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상 영역에 비해 미적 체험과 표현 영역의 예시 작품은 학생들의 창작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전통 미술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미술 교과목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상 영역에 치중된 전통 미술 예시 작품을 보완하여 미적 체험과 표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미적 체험 영역에서 불교조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연과 미술’ 또는 ‘자연미와 인공미’를 주제로 하는 단원 : 자연과 동화되는 불교조각을 설명한다. 이러한 예로는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과 자연 속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불상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순수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예술 활동의 결과물인 조각을 설명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조각의 미학을 부연 설명할 수 있다.
- ② ‘생활과 미술’ 단원 : 우리나라 전통 삶의 일부로써 불교조각의 의미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생활 속 미술’이란 그 사회의 정신문화를 대변한다. 우리의 전통 사회를 지배한 다양한 사상은 종교적 행위보다는 하나의 생활 문화로써 여러 가지 창조활동의 원천이 되었다. 마을 주변의 돌부처 또는 석탑은 이러한 전통 사회의 창조물임을 설명한다.
- ③ ‘미술과 종교’ 단원 : 여러 종교 미술과 더불어 불교조각을 예시할 수 있다. 종교 철학에 따른 상징과 기호의 의미를 서술하고, 종교에 따른 미적 취향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한다.

* 표현 영역에서 불교조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상상하여 표현하기’ 단원 : 불교조각에는 상상에 의해 창조된 다양한 동식물 문양이 있다. 상상적인 동물은 여러 동물의 신체 일부를 발췌하여 하나로 조합하거나 사람과

동물을 합쳐서 기이한 형태를 창조한다. 이렇게 탄생한 상은 여러 동물들의 상징성을 아우르는 다중 성격을 지닌다. 식물 문양도 특정 식물의 단순화에만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식물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형상으로 창조되거나 여기에 추상 형태가 가미되어 신비적 형태로 재탄생 한다. 이러한 상상의 동식물은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또는 이집트(Egypt) 등 고대 문명의 발생지에서도 발견되지만 불교조각에서 예시작품을 찾는 것도 전통 미술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느낌 표현하기’ 단원 : 미술작품은 다양한 조형요소 및 법칙의 운용에 의해 전달되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처상은 원만한 얼굴과 단아한 자세를 통해 해탈한 존재의 성격을 보여주고, 인왕상이나 사천왕상은 험악한 얼굴과 짧은 목, 그리고 역동적인 동작을 통해 악(惡)에 대응하는 강렬한 힘을 보여준다. 이렇듯 조형요소의 차이에 의해 다양한 느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 ③ ‘입체로 표현하기’ 단원 : 양감이 강조된 조각을 설명할 때는 불상을 예시하고, 운동감이 강조된 조각은 인왕상을 기술할 수 있다.
- ④ ‘형(形)과 색(色)’ 단원 : 불교조각은 전통적으로 색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금불상처럼 단일 색조로 전체를 바르는 방법과 신체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각각의 방법에 의한 효과를 설명하고, 조각이 지닌 천연 재료의 색을 그대로 남기는 경우를 비교 설명할 수 있다.

5. 단계별 편성

미술교과서는 초등학교(3~6학년), 중학교(7~9학년), 고등학교(10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 과목인 ‘미술과 생활’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조각은 초등학교 3, 6학년 미술교과서를 제외한 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미술교과서의 예시 도판은 한정된 작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조각에 대한 서술 또한 초·중등 학년별 위계에 상관없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불교조각의 다양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년 위계에 의한 단계별 편성과, 작품 설명의 난이도 산정에 관한 대안이 필요하다.

* 불교조각 예시 작품의 학년별 편성에 관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영역별 구성 : 초등학교(체험 영역 위주), 중학교(표현 영역 위주), 고등학교(감상 영역 위주)
- ② 인지도 구성 : 초등학교(인지도가 높은 작품 선정), 중학교(다양한 작품 선정), 고등학교(특색 있는 작품 선정)

- ③ 시대별 구성 : 초등학교(통일신라시대 작품), 중학교(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작품), 고등학교(고려시대, 조선시대 작품)
- ④ 설명의 난이도 구성 : 초등학교(이해와 감상 중심), 중학교(분석적 이해와 표현 중심), 고등학교(포괄적 해석과 평가 중심)
- ⑤ 도상별 구성 : 초등학교(동식물상, 동자상), 중학교(불상, 보살상), 고등학교(범천, 제석천, 인왕상, 사천왕상 등)

위에 제시된 학년에 따른 단계별 구성 요소는 현재 미술교과서가 안고 있는 중복성과 획일성을 벗어나기 위한 보완적 의미를 지닌다. 전통 미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각 형식의 탄생 배경, 조형 특성, 그리고 미학적 의미 등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불교조각이 지닌 다양한 조형성을 한 권의 교과서에서 충분히 설명하기란 어렵다. 학년에 따른 단계별 편성은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보완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단계별 구성 내용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의 학년별 학습능력에 부합하는 교육내용은 교사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교사용 지도서는 학년 위계에 의한 구분 없이 교과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IV. 결론

21세기 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술교육은 세계의 보편적 미학 기준에서 벗어나 각 문화에 뿌리를 둔 다양한 미의식을 담아내야 한다. 우리나라 미술교육은 7차례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 환경에 맞는 다양한 미술교육법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한국 미술의 정체성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동시에 다른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통해 공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린 불교조각을 대상으로 교육적 활용 특징을 분석하고 다문화 교육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행 미술교과서에 기술된 불교조각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사실적이며 이상화된 인체 표현’을 우수한 작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교조각사 분야의 연구자들이 서양 중심의 미술교육을 받은 결과인지 미술교육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불교조각사 연구 성과를 인용한 결과인지 불분명하지만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양의 고전주의 미학으로 불교조각을 평

가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며 우리의 전통 미의식에 입각한 평가 기준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원화된 미의식에 의한 불교조각 서술 및 이에 기초한 수업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불교조각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양의 고전주의 시각으로 8세기의 일부 작품에만 의의가 주어질 뿐 대부분의 작품은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양한 미학을 적용할 경우 보다 다양한 작품에 대한 예술성을 탐구할 수 있다.

둘째, 객관적인 감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서양의 고전주의 시각에 의한 주관적인 서술은 학습자의 감상 능력을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적 표현력이 뛰어난 불상이라 할지라도 서양의 사실적 조각과 비교하여 동질적 조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오히려 서양 조각과 구별되는 불상의 독창적 조형성에 대한 객관적 서술이 학습자의 동조를 얻을 수 있고 교육적 효과 또한 크게 할 수 있다.

셋째, 불교조각에 대한 교육적 활용성이 확대된다. 현행 미술교과서에 예시된 불교조각은 대부분 감상 영역에 치중되어 있다. 예시 영역을 미적 체험 및 표현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전통 조각의 현대적 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불교조각이 지닌 다양한 조형 특성을 표현 영역에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창작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불교조각에 관한 연구는 건축, 회화, 공예 등 다른 전통 미술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미의식에 기초하는 미술교육은 상호 변증법적 비교에 의해 자신의 문화와 주변 문화의 특성을 도출한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불교조각의 다원적 조형특성과 이에 대한 교육적 활용 방안은 미술사가와 미술교육가의 적극적인 담론을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미래 미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강우방(1982). 금동일월식삼산관사유상고-동위양식계열의 6세기 고구려, 백제, 고신라의 불상 조각양식과 일본지리양식의 신해석. **미술자료**, 30, 1-36.
- 강우방(1995).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 서울: 대원사.
- 교육부(199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원룡(1978). **한국미의 탐구**. 서울: 열화당.
- 김원룡(1980). **한국미술사**. 서울: 범문사.
- 김원룡(1987). **한국미술사 연구**. 서울: 일지사.
- 김인창(2007). 불교도상과 미술양식의 관련성 연구. **미술교육논총**, 21(3), 407-432.
- 김리나(1989).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서울: 일조각.
- 김리나(1992). 삼국시대의 불상, **한국미술사의 현황**. 서울: 한림과학원총서.
- 문명대(1980). **한국조각사**. 서울: 열화당.
- 문명대(2000). **한국미술사 방법론**. 서울: 열화당.
- 박정애(1999). 문화의 의미와 해석: 국제화 교육과정예의 함축성. **미술교육연구논총**, 10, 23-38.
- 박정애(2001). **포스트모던 미술, 미술교육론**. 서울: 시공사.
- 박휘락(1998). **한국미술교육사**. 서울: 도서출판 예경.
- 박휘락(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서울: 시공사.
- 이주형(2007). 종교와 미학 사이: 불상 보기의 심미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 **미학예술학연구**, 25, 89-118.
- 장미진(2008). 불교미학의 기초개념. **불교평론**, 10(1), 217-270.
- 장충식(1983). **한국의 불상**. 서울: 동국대학교역경원.
- 정영호(1984). 대마도발견백제금동반가상. **백제연구**, 15, 125-132.
- 진홍섭(1976). **한국의 불상**. 서울: 일지사.
- 최완수(1984). **불상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 홍윤식(1995).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 서울: 대원사.
- 황수영(1973). **한국불상의 연구**. 서울: 삼화출판사.
- 황수영(1974). **불탑과 불상**. 서울: 교양국사총서.
- 황수영(1989). **한국의 불상**. 서울: 문예출판사.
- 황수영(편)(1987). **한국불교미술사론**. 서울: 민족사.

• 논문 접수 : 2008년 8월 27일 / 수정본 접수 : 2008년 10월 5일 / 게재 승인 : 2008년 10월 15일

ABSTRACT

New Interpretation of the Buddhist Sculpture and its Educational Signification

Inchang Kim(Lecturer, Mokpo University)

It has been understood that an artistic style of the Buddhist sculpture undergoes changes according to the time and space. The evolution of artistic style of the Buddhist sculpture, however, depends upon the secular meanings. Each of the Buddhist gods is characterized by their own religious nature and iconography. In the sculptural representation, each god displays his own artistic style, i.e. the physical proportion, facial characteristic, massiveness of work, bodily movement, and depth of the carving, etc. The beauty of the Buddhist sculpture differs from the aesthetic point of the Western art. The Buddha image is characterized by massive body and bold treatment. The Bodhisattva images are shown with slender body and delicate treatment. The guardian Kings are usually represented with powerful movement and hard treatmen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bring out a fresh interpretation of the Buddhist sculpture, and put forward some thoughts on its educational use. The multi perspective way of seeing is necessary to read the Buddhist sculpture. The present paper tried to check over the descriptions of Korean Buddhist sculpture shown on the school textbook. There is a series of the Buddhist sculptures which is frequently shown on the art textbooks. Their descriptions are based on the Western classical beauty. Such subjective criticism fails to describe the artistic quality of the Buddhist sculpture. The multi perspective way of seeing is alternative criticism, and will provide better educational explanation.

Key words : iconography, style, Buddhist, sculpture, art education